

사람들은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불안속에서 자위적인 행동과 표현을  
제한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제도가  
중요하다

CCTV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영상을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개인정보 1원 수집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감시 기술의 운영 과정에 대해 알수 있도록 투명성은 확보해야  
한다

### 3. 결론

CCTV와 바이오시버 기술의 사회 안전을 높이는 유용한 기술이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1984년과 같은 감시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안대란 적절한 법과 제도 아래에서 운영된다면 「유트피아」와 같은 안전하고  
잠시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기술의 미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고 통제  
하느냐의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 CCTV와 인터넷 전송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

## 1.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CCTV와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CCTV 촬영물을 비디오 서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범죄예방과 안전관리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와 감시 사회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김지호씨의 1984년 카 호머스모어의 유튜비아를 통해 이러한 기술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자 한다

## 2. 결론

만약 CCTV와 비디오 서버기술은 사회 안전을 향상 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실종과 수사나 재난상황에도 유용하게 활용 된다

또한 공공장소의 안전을 향상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기술은 호머스모어가 말한 이상적인 사회

즉 유튜비아에 가까운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CCTV 영상 데이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송되고 저장되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정부나 특정기관이 시민들의 행동을 추적하기 감시한다면 김지호씨의 소설 1984에서 묘사된 감시 사회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